

암환자 3명 중 2명 5년 이상 생존

남녀 암발생 1위 위암 ... 갑상선암 크게 감소

2015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며, 갑상선암은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률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4701명으로 남자 11만3335명, 여자 10만1366명에 비해 1.9% 감소했다.

특히 갑상선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19.5% 감소해 전체 발생자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갑상선암은 과잉진단 논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암과 대장암은 각각 2.7%, 1.6% 감소했다. 반면 유방암은 4.3%, 전립선암은 3.5%, 폐암은 5.7% 증가했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이어 대장

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순으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최근 5년간(2011~2015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이었다.

10년 전(2001~2005년) 진단 받은 암환자와 비교해 16.7%p 증가했으며, 5년 전(2006~2010년)보다 5.5%p 향상됐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간암, 폐암,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암유병자는 총 161만1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우리나라 국민 31명당 1명이 암유병자임

을 뜻한다.

특히 65세 이상은 10명당 3명이 암유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7명당 1명, 여자는 13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한편 복지부는 1996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10개년 암정복계획을 수립·시행했다. 또한 2016년 9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5~74세 고위험군 폐암검진 시범사업,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실시했다.

복지부는 향후 암 연구조사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 및 국가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건강보험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 이용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으며, 3600여대가 운영 중이다. 연

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납부확인용, 지역가입자 연발정산용/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납부확인용)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통합접수포털, 정부24, 국민건강보험 EDI)와 모바일(M건강보험 앱)을 통해 발급받거나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게 시 판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학술대회

한국중환자간호학회(회장 이영희)는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인간중심의료에 대한 이해와 간호실무적용' 주제로 2월 22일 오전 9시 삼성서울병원 압영원 강당(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 간호사 보수교육(8시간) 인정 프로그램이며,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2월 12일까지 사전등록하면 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포스터 초록 접수 마감은 2월 14일 오후 6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https://ksccn.jams.or.kr) 참조.

질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책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학술대회는 '간호에서 근거의 생성과 확산' 주제로 열렸다. 1월 18일에는 '근거 기반간호실무의 개론' 주제 기본연수과정도 진행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인사 전남 영암군보건소 이국선 소장

전남 영암군보건소 소장에 이국선 건강증진팀장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1월 1일자.

이국선 소장은 1985년 조선간호대를 졸업했다. 호남대에서 사회복지학 및 스포츠·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공직에 입문해 영암군보건소에서 줄곧 근무하며 모자보건, 농어촌의료개선사업, 결핵관리, 정신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증진 등에 힘써왔다. 건강증진사업, 결핵관리사업, 암관리사업 등에 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이국선 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과 감동이 있는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월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이국선 소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주혜진 기자 hjjoo@

오의금 연대 교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표창

오의금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가 '2017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 및 보건산업 육성·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12월 13일 열렸다.

오의금 교수는 간호분야의 연구개발 진흥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해 보건의료분야의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연구개발 정책 추진에 힘쓴 공로로 수상했다.

간호서비스분야 연구개발 추진 방안 도출, 간호기기 개발 촉진 및



지원방안 기획, 고위험 퇴원환자 간호서비스 모델 개발,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 국내외 주요 전문학술지에 107편의 연구논문을 출판해 연구개발을 통한 보건의료 지식체 확장에 기여했다.

오의금 교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서비스 R&D 심의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연세대 간호대학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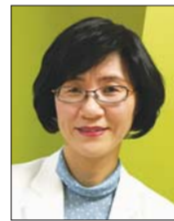
정규숙 기자 kschung@

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 총회 ... 새 회장 백정미 수간호사

한국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1월 19일 열었다.

총회에서는 새 회장으로 백정미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수간호사(사진)를 선출했다. 부회장에 정선경 충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책임간호사와 이해영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파트장이 뽑혔다.

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교육실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임상시험에서의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연 1회 발간하기로 했다. 홍보활동 및 회원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학술대회는 '성공적 임상시험을 위한 의사소통과 리더십' 주제로 열렸다.

최수정 기자 sjchoi@

인터뷰 한국간호과학회 김희승 신임회장

"시대 변화 발맞춰 간호인재 양성 주력해야"



김희승 회장은 "학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에 있다"며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간호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8개 회원학회와 적극 소통하고 유대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코호트연구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유관단체와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간호학을 발전시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26대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으로 올해 1월 1일 취임한 김희승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면서 "학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IT를 활용한 교수법 등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개인 맞춤형 간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IT기술 활용에 능통한 전문적인 간호사를 배출하고, 현장에서 개인 맞춤형 간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 간호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승 회장은 "간호의 효과와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간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혜영 간호사, SCI 논문 게재

연하관란 뇌손상환자의 영양관리 연구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혜영 간호사의 연구논문이 SCI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Nursing'에 게재됐다.

논문은 지난 12월 온라인 저널에 올랐으며, 올해 오프라인 저널로 발간될 예정이다. 논문명은 'Changes in the Dysphagia and Nutritional Status of Patients with Brain Injury'이며, 뇌손상환자의 연하관란과 영양상태 변화를 다뤘다.

병원 측은 그동안 진료교수들의 연구논문에 간호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는 있었지만, 간호사 단독 연구논문이 SCI 학술지에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영 간호사는 연하관란(삼킴 장애)이 있는 뇌손상환자들을 대상



으로 비위관 제거 시점부터 14일까지 시간경과에 따른 연하관란 정도 변화를 확인하고 영양 상태를 분석했다. 급성기가 지난 뇌손상환자에게 연하관란이 있을 경우 재활치료와 전반적인 예후 개선을 위해 영양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연하관란 정도에 따른 적합한 식이제공 시점과 간호사의 모니터링 시점에 대한 객관화된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혜영 간호사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준 동료 간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30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 12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강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가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공무원

8급 간호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시험 상세안내 보러가기

QR코드를 찍어보세요